

#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## 이집트

Arab Republic of Egypt

2019년3월8일 | 책임조사역(G3) 김희원

- 국가개황
- 경제동향
- 경제구조 및 정책
- 정치·사회동향
- 국제신인도
- 종합의견



## 일반개황

<b>면적</b> 1,001천 km <sup>2</sup> 	<b>인구</b> 9,698만명 (2018 <sup>e</sup> ) 	<b>정치체제</b> 대통령중심제 	<b>대외정책</b> 친서방, 친아랍 
<b>GDP</b> 2,494.71억 달러 (2018 <sup>e</sup> ) 	<b>1인당GDP</b> 2,572.38달러 (2018 <sup>e</sup> ) 	<b>통화단위</b> Egyptian Pound 	<b>환율(\$기준)</b> 17.82 (2018 <sup>e</sup> ) 

-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9,6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대국이며, 전체 인구의 90%는 수니파 이슬람교, 10%는 기독교(대부분 콥트교)를 믿음.
- 유럽, 중동,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정책 등을 통해 역내 정치, 경제,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음.
-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2011년 1월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무르시 후보가 당선 되었으나, 이슬람주의 정책 강요와 권력 기반 확대에만 급급하다 엘시시 국방장관이 주도한 쿠데타로 1년 만에 정부가 전복되었음.
- 이후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엘시시 국방장관의 당선에 따라 정식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불안이 완화되었으며,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.

## 우리나라와의 관계

**국교수립** 1995. 4. 13 수교 (북한과는 1963. 8. 24)

**주요협정** 항공협정('79), 이중과세방지협정('92), 무역협정('96),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('96), 사증면제협정('96), 원자력평화협정('01), 장관급공동위원회 설립협정('12), 문화원 설립 및 운영협정('14),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('16)

## 교역규모

(단위 : 천달러)

구분	2016	2017	2018	주요품목
수 출	1,768,981	1,324,894	1,846,769	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
수 입	62,466	89,643	312,645	천연가스, 석유제품, 천연농산물

**해외직접투자현황(2018. 9월말 누계, 총투자 기준)** 49건, 350,282천 달러

## 국내경제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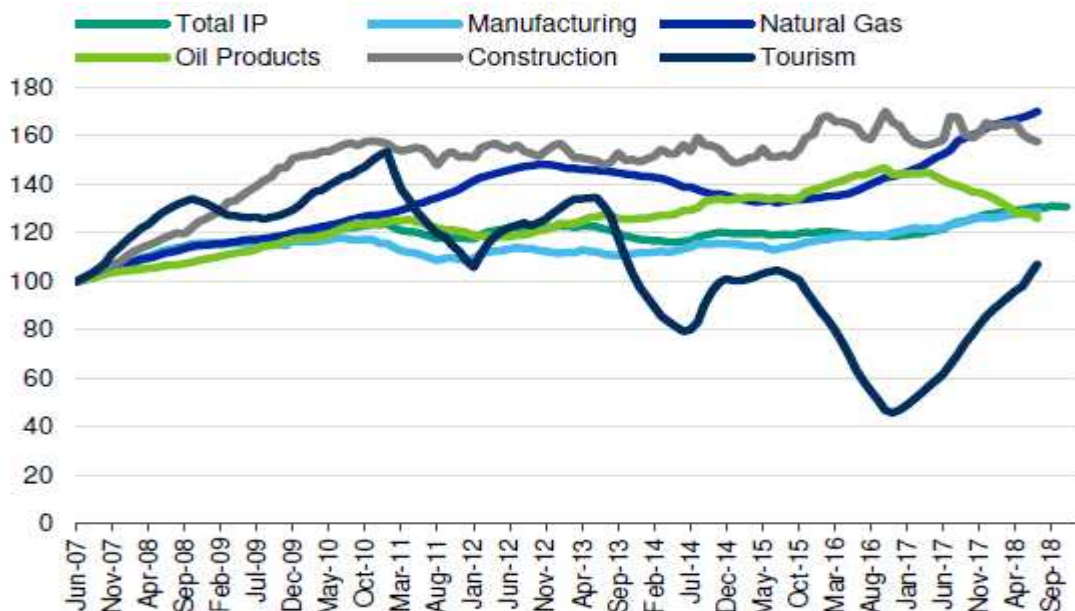
구분	2014	2015	2016	2017	2018
경제성장률	2.9	4.4	4.3	4.2	5.3
소비자물가상승률	10.1	11.0	10.2	23.5	20.9
재정수지/GDP	-11.3	-10.9	-12.5	-10.4	-9.3

자료: IMF, EU

### 엘시시 정부의 안정적 집권 및 관광산업 회복에 따른 경기 회복세 지속

- 2011년 반정부 시위 및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이후 2013년 쿠데타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따른 관광수입 급감,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2014년까지 2%대를 기록했던 이집트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엘시시(el-Sisi) 대통령 당선 이후의 정치불안 완화, 해외원조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5~17년 4%대를 회복하였음.
- 2018년에는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치안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및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5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9년에도 Zohr 가스전에서의 생산량 증가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속 등에 힘입어 5%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.

< 부문별 산업생산지수 추이 >



자료: Moody's(2019. 2월 신용평가보고서)

## 국내경제

###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와중에도 에너지 보조금 완전 철폐 검토

- 2016년 11월 IMF의 120억 달러 구제금융 승인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이집트파운드화 가치가 급락\* 하였으며,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, 부가가치세 도입 및 연료 보조금 감축, 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.

\* 환율 추이(이집트 파운드/달러) : 7.71('15) → 10.07('16) → 17.84('17) → 17.82('18)

- 2019년 1월 이집트 정부는 IMF에 약속한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인 에너지 보조금 철폐를 위해 변동유가제 도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, 금번 조치는 전체 유류소비의 4%만을 차지하는 옥탄가 95 휘발유에만 적용되어 향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빵값 보조금 삭감으로 유발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주변국(수단, 요르단)을 지켜본 이집트 정부에게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체 유류 및 가스,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 철폐 조치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나, 최근의 국제유가 안정세가 이집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.

###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

- 이집트 정부는 IMF 구제금융 수혜의 조건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보조금 개혁과 함께 기존의 일반 판매세(10%)를 대신하여 2016년 9월 부가가치세(13%)를 도입\* 하였음. 이처럼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-12%에서 2018년 -9.3%로 감소하였음.

\* 2017년 7월부터는 14%의 부가가치세율 적용

- 2018년 9월 관세인상 조치 등 이집트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등에 힘입어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-8%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임.

## 대외거래

### 주요 대외거래 지표

(단위: 백만달러, %)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
경 상 수 지	-5,955	-17,243	-20,494	-7,940	-6,058
경상수지/GDP	-1.9	-5.2	-6.2	-3.4	-2.4
상 품 수 지	-31,178	-31,389	-31,048	-29,065	-39,219
상 품 수 출	25,269	19,031	20,018	23,339	28,986
상 품 수 입	56,446	50,420	51,066	52,404	68,205
외 환 보 유 액	10,797	12,123	19,735	32,072	37,642
총 외 채	46,492	48,989	67,641	82,886	93,066
총외채잔액/GDP	15.2	14.8	20.3	35.0	37.3
D.S.R.	5.8	7.7	10.3	8.7	7.9

자료: IMF, EIU

###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는 관광수입 회복 등으로 개선

- 이집트는 매년 약 3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\*가 발생하고 있으며, 관광 수입, 수에즈 운하 통과료 수입, 해외 자국민 노동자 송금, 해외원조 등으로 무역적자를 보전하고 있음에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
\* 무역적자(억 달러): 312('14) → 314('15) → 310('16) → 291('17) → 392('18)

- 2013년 쿠데타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 이후 관광 수입, 수에즈 운하 통과료 수입 등 각종 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-6.2%까지 증가하였음.
- 2016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이집트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승 효과와 더불어 관광수입\* 회복, 해외 자국민 노동자 송금액\*\*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-2.4% 수준까지 개선됨.

\* 관광수입(억 달러, EIU): 72('14) → 61('15) → 26('16) → 78('17) → 86('18)

\*\* 경상이전수취(억 달러, IMF BOPS): 281('14) → 189('15) → 189('16) → 251('17) → 272('18)

## 외채상환능력

###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이나, D.S.R은 2018년 말 7.9%로 양호한 수준

- 총외채잔액은 IMF 구제금융 도입, 국채 발행, 국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GDP 대비 37.3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다만 D.S.R은 2016년 10.3%에서 2018년 7.9%로 낮아져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임.

### 2018년 외환보유액 역대 최고수준 기록

- 2011년 반정부 시위 및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이후 2013년 쿠테타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따른 관광 수입, 수에즈 운하 통과료 수입 급감 등 각종 외화 수입원 감소로 2015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121억 달러(월평균수입액 2.0개월분)를 기록하였고, 이집트 정부는 2016년 6월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2016년 11월 IMF 집행이사회로부터 구제금융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음.
- 엘시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IMF 권고에 따른 경제개혁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치안 안정에 따른 관광객 수 증가에 힘입어 2018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76억 달러(월평균수입액 5.2개월분)로 증대됨.

## 구조적취약성

### 높은 관광업 비중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

- 이집트의 경제구조는 2017년 기준 서비스업 55.7%, 제조업 33.1% 및 농업 11.9%로 이루어져 있으며, 특히 관광업의 경우 2017년 GDP의 11.0%\*에 달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.

\* WTTC(World Travel & Tourism Council)의 'Economic Impact 2018 Egypt' 기준

-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국내 및 중동의 정치.사회 상황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.
- 2010년 125억 달러에 달하던 관광 수입은 2011년 '아랍의 봄' 이후 지속된 테러와 정정불안으로 2016년 26억 달러까지 급감한 후 2018년 86억 달러로 회복 중임.

## 성장잠재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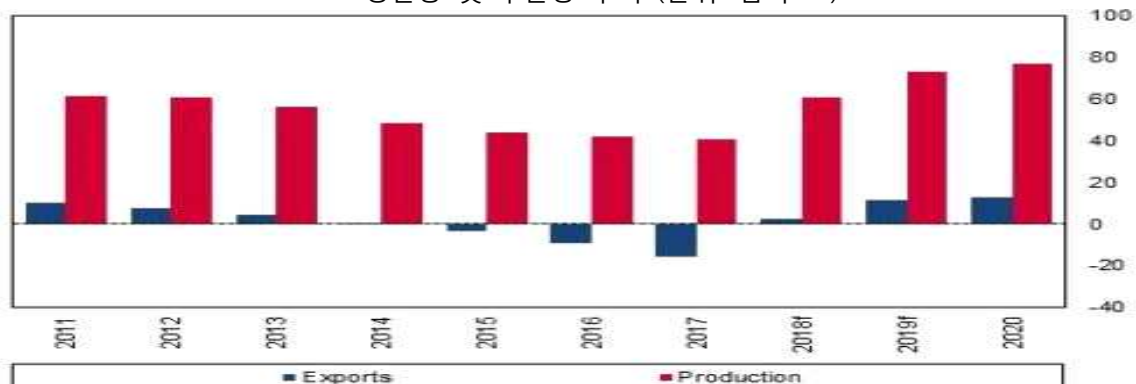
### 유럽, 아시아,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무역 허브

- 이집트는 거대 시장인 EU와 오일머니가 풍부한 아랍권,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무역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가짐.
- 아울러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관할하고 있어 양 대륙간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, 외국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수에즈 운하 주변에 다수의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를 운영 중임.

### 지중해 최대 규모의 Zohr 천연가스전에서의 LNG 생산으로 성장 발판 마련

- 이집트는 2015년 지중해 해안에서 190km 떨어진 Zohr 광구에서 추정매장량 약 8,500억 m³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발견하였으며, 이는 현재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된 가스전 중 최대 규모임.
- Zohr 가스전은 2017년 12월 첫 생산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Fitch Solutions 연구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LNG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면서 무역수지 개선과 외환보유고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< LNG 생산량 및 수출량 추이 (단위: 십억 m³) >



자료: Fitch Solutions



## 성장잠재력

### Egypt Vision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·교통산업 발전 가능성

- 이집트 정부는 국가 지속가능 개발전략 'Egypt Vision 2030'의 10대 축의 하나인 도시개발을 위해 공공 서비스(대중교통 등) 확충, 도시 빈민촌 개발 등을 통해 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 균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음.
- 카이로 동부에 최대 7년간 총 450억 달러가 소요될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, 100억 달러가 소요될 Alexandria-Cairo-Luxor-Aswan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임.

## 정책성과

### IMF 권고에 따른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

- IMF는 2016년 11월 이집트의 거시경제 안정성 및 성장 제고를 위해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(EFF : Extended Fund Facility)을 승인하였으며, 27.5억 달러를 즉시 집행함.
- IMF는 현재까지 총 80억 달러를 집행하였으며, 에너지 보조금 완전 철폐 등의 문제로 5차분 20억 달러 지급이 지연되다가 2019년 2월 IMF 이사회가 5차분 지급을 승인하였음. 6차분 20억 달러는 2019년 6월에 집행할 예정임.
- 엘시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IMF와 구제금융 도입시 합의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으며, 2016년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한 이래 VAT 도입, 변동환율제 실시 및 보조금 감축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해 오고 있음.

### 해외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

- 2017년 7월 해외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투자법을 발효한 바 있으며, 2018년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, WEF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의 순위가 소폭 상승하였음.

< 기업경영여건 관련 각종 지표 순위 >

	2016년	2017년	2018년
Doing Business	122위/190개국	128위/190개국	120위/190개국
Global Competitiveness Index	115위/138개국	100위/137개국	94위/140개국
Transparency International Index	108위/176개국	117위/180개국	105위/180개국

자료: World Bank, WEF, Transparency International



## 정책성과

- UNCTAD 2018 자료에 따르면, 엘시시 대통령 당선 이후 각종 경제개혁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이집트의 FDI 유입액은 2016년 81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74억 달러로 소폭 하락하였음.
-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016년 2,363만 달러에서 2017년 9,351만 달러로 급증하였음.

< 이집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>



자료: UNCTAD 2018

<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해외직접투자 추이 >



자료: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

## 정치동향

## 엘시시 대통령, 2018년 연임 성공으로 안정적 정권 유지

- 30년 간 장기 집권한 무바라크 대통령이 2011년 1월 반정부 시위로 하야하면서 독재정권이 종식되었고, 2012년 6월 무르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엘시시 국방장관이 주도한 쿠데타로 1년 만에 정부가 전복됨.
- 이후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엘시시 국방장관의 당선에 따라 정식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불안이 완화되었으며,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.
- 한편, 엘시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탄압\*과 언론규제 강화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.

\* 대선 후보로 평가받던 사미 아난 전 합참의장은 문서 위조와 육군 규정 위반 혐의로 군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, 유력한 경쟁자였던 아흐메드 샤피크 전 총리는 행방불명 소동 끝에 대선 출마를 포기함.

## 사회동향

## 권위주의와 고강도 경제개혁으로 인한 대중의 반발 가능성

- 정부 기관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, 엘시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IMF 요구사항\* 이행에 따른 고강도 긴축정책 실시에 따라 2018년 기준 20%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11%에 달하는 실업률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.
- \* 이집트 정부는 IMF 요구사항인 VAT 및 변동환율제 도입, 보조금 축소 등 각종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, 2019년 1월 IMF에 약속한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인 에너지 보조금 철폐를 위해 변동유가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음.
- 다만, 2017년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, 실업률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, 정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엄격한 치안관리와 경제개혁의 시급성을 홍보하고 있으며, 개혁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 당장 큰 소요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 21%에서 2019년 14%로, 실업률은 2018년 11%에서 2019년 10%로 낮아질 전망이다.

## 국제관계

## 친서방 정책과 함께 GCC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추구

- 엘시시 행정부는 미국 및 EU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,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, UAE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음.

## 국제관계

-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2016년 4월 240억 달러의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하고, 이집트 중앙은행이 2016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0억 달러의 예금 유치를 발표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은 이집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사우디아라비아, UAE 등 GCC 회원국들은 수니파 왕정 국가로, 이슬람 공화정을 추구하는 무슬림형제단과 그 추종세력이 자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엘시시 행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.

### 아프리카 경제통합의 주도적 역할 담당

- 2019년 아프리카 연합(African Union) 의장을 맡고 있는 이집트는 아프리카 경제통합의 핵심 내용인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(AfCFTA) 협상을 주최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 간에 5년 내 전체 상품의 90%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중 49개국이 서명하고 현재까지 6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AfCFTA는 2019년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, 약 12억 명의 인구, 2.5조 달러의 GDP 규모 등 WTO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아프리카 내부의 열악한 교통망 등 인프라 부재, 55개국에 달하는 회원국 간 통관절차의 복잡성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으나,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이집트에게 AfCFTA는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.

## 외채상환태도

### 파리 클럽과 미국 등으로부터 채무재조정 수혜 경험 보유

- 이집트는 파리 클럽과 1987년, 1991년에 각각 71억 달러, 212억 달러 규모의 외채 리스케줄링에 합의한 바 있음. 한편 미국은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2012년 이집트의 대 미국 채무 중 10억 달러를 탕감하였음.

###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채무규모 및 연체금액 감소

- 2018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채무규모는 총 195억 달러(단기 14억 달러, 중장기 181억 달러)로 전년(총 197억 달러)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, 채권국별로는 독일 75억 달러, 프랑스 40억 달러, 이탈리아 37억 달러 등임.

- 이집트 정부의 외채상환 노력으로 연체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중임.

\* ECA 앞 연체금액 추이(억 달러, OECD): 5.6('16) → 2.3('17) → 1.9('18)

## 국제시장평가

###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5등급(2019.01)	6등급(2018.01)
Moody's	B3 (2018.08)	B3 (2018.02)
Fitch	B (2018.08)	B (2018.01)

### OECD, S&P 신용등급 상향 조정

- 2018년 5월 S&P는 수출 증가, 가스 생산량 증가로 인한 경제지표 개선을 이유로 2018년 5월 동국의 신용등급을 B-에서 B로 상향 조정하였고, 2019년 1월 OECD CRE 회의에서도 경제지표 개선 및 엘시 시 대통령의 경제개혁 지속 추진을 높게 평가하여 기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음.

- 이집트는 반정부 시위 및 군부 쿠데타 등 정권 붕괴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2012~14년 경제성장률이 2%대로 하락하였으나, 엘시시 대통령의 안정적 집권이 이어지면서 2015~18년 경제성장률은 4~5%대로 회복되었음.
- 2013년 쿠데타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 이후 관광 수입, 수에즈 운하 통과료 수입 등 각종 수입원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, 2018년에는 이집트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경쟁력 상승효과와 관광 수입 회복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(-3.4%) 대비 개선된 -2.4%를 기록하였음.
-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엘시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, IMF 요구사항 이행에 따른 고강도 긴축정책 실시에 따라 2018년 기준 20%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11%에 달하는 실업률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.
- 총외채잔액은 IMF 구제금융 도입, 국채 발행, 국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GDP 대비 37.3%로 높지 않고, D.S.R 또한 2016년 8.7%에서 2018년 7.9%까지 낮아져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임.